

實行理事會

(제 1 차~제 3 차)

제 1 차 實行之사회

○ 일 시 : 1985. 2. 8 (금) 08:00~10:40

○ 장 소 : 세종호텔 2층 사임당홀

(협의사항)

1. 고가특수의료장비 도입 심사관심 제고

보사당국의 현행도입 심사기준만으로는 경영이 부실한 병원에 도입 허가되어 상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국산 의료기의 품질보장책이 모호한 실정이므로 본회가 계속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다.

2. KOHFAM 및 보건정책 설명회

보사부가 주최하는 "전국 보건의료망 편성 결과 보고 및 보건정책 워크샵"('85. 2. 15~16 경기이천)에 본회를 대표하여 이인수 보험이사과 박성덕 경영이사가 참석케 됨에 따라 병원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 연구소 신영수 교수를 조치하여 사전에 설명을 듣고 제 2 차 실행이사회를 예정보다 조기 소집하여 실행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키로 하다.

3. 의료기관 개설 조정방안 설문서 제출

병원개설을 중앙에서 통제할 경우 민간의료기관의 성장을 위축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회의 의견을 통합 제출키 위해 정부계획안과 설문서를 실행이사에게 송부하여 설문 의견을 종합키로 하다.

(승인사항)

1. 사무실 이전

현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과 임대 대상 건물에 대한 설명을 보고 받고, 월 임대료가 저렴한 조양빌딩으로 이전을 추진키로 승인하고 세부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장단에 위임하다.

2. 전공의 정화 정신교육 실시

금년에 인턴으로 임용되어 제 1 선에서 처음으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에게 필요한 정신교육을 '85. 3 월중에 사정위와 보사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단위로 순회교육을 실시키로 하다.

제 2 차 實行之사회

○ 일 시 : 1985. 2. 15(금) 08:00~10:00

○ 장 소 : 세종호텔 2층 사임당홀

1. 병원표준화 사업 및 수련교육 발전을 위한

워크샵에 대한 본회 입장

전공의 수련에 대한 본회와 학회의 견해가 때로는 상치될 수도 있으나 한국적인 현실은 병원의 인력과 수련교육의 양면성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수련병원과 수련교육이 공히 향상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다.

2. 의료기관 개설 조정방향 설문에 대한 본회의견

박이갑 이사 및 이영균 이사께서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현재 보사부주최 워크샵에 본회 대표로 참석중인 이인수 이사 및 박성덕 이사의 의견을 보충하여 본회 의견으로 제출키로 회장단에 위임하다.

제 3 차 실행이사회

○일시 : 1985. 2. 22(금) 08:00~9:40

○장소 : 세종호텔 2층 사임당홀

(협의사항)

1. 감사원 감사결과 요약취급기관 행정처분대책

동 처분내용이 행정편의 일변도로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메스컴에 일방적으로 보도될 경우 수검병원은 물론 전체병원계의 명예를 훼손하여 사회적인 오해를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병원계의 명예와 권익을 수호함에 있어서 재심청구나 행정소송도 불사하도록 전체 회원병원이 행동통일을 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10개 수검병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하기로 하다.

(특별보고)

1. KOHFAM 및 보건정책워크샷 참석결과보고

보사부가 주최한 “전국 보건의료망 편성 결과보고 및 보건정책 워크샷”(’85. 2. 15-16 경기이

천)에 참석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각각 보고 및 설명하다.

- 가. 사립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현실정에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전달체계문제는 민간주도형으로 유도해 나가야 될 것이며 일방적인 규제는 곤란(이인수 보험이사)
- 나. 의료전달체계는 가정의 제도가 확립된 후 가능(상동)
- 다. 당초 발표내용에서 다소 골격의 변화가 있었는데, 2, 3차 의료기관에서도 외래 환자를 진료가능(박성덕 경영이사)
- 라. 환자나 국민의 입장에서 설득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봄(상동)
- 마. 의료관계 법규의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었는 바 관심 필요(상동)

2. 보건정책 입안자와의 접촉 강조

이어서 동 워크샷에 「옵서버」로 참석한 바 있는 노경병 부회장께서 참석 소감을 피력하고 특히 보사정책이 예방의학을 전공한 분들에 의해서 입안되고 있다는 인상이 강렬하였으므로 향후 의료계에서는 평소 이분들과의 접촉을 빈번히 가져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유도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다.

〈46면에서〉

標가 있다. 今後 21世紀를 展望할 때에, 國際化, 情報化, 自由化 等 여러가지 變化가 예상되며 그 중에서 高齡化의 問題가 심각하다.

國民生活의 立場에서 말할때, 이때야 말로 社會保障制度가 必要하고 活力있는 福祉 社會란 面에서 생각할 때 너무 高負擔의 社會保障制度를 유지하기는 困難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효율성있는 社會保

障制度의 改革이 要求되고 있는 것이며 이번 改革과 같은 것이 關係者에게 일시적으로 손약이 될지언정 21世紀에 國民生活의 安定을 確保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번의 年金 및 醫療保障制度의 改革은 단지 財源面에서 論議될 問題가 아니라 將來의 社會保障制度의 確立이란 側面에서 論議되어야 한다.